

교회 성장의 주역들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개역, 사도행전 11:19~30]

예 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려고 찾아온 사람들과 병을 고치러 온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종이 나타나 교회를 세우면 참 쉬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오셨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초만 제공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은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본문에서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주역이 누구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났지요?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무리를 나누어 보면 자그마치 일곱 종류의 무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누가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킨 주역인지 찬찬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라는 말씀에 **‘흩어진 자들’**이 나옵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지중해 위쪽에 있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여기서 못 살겠다 해서 저기 만주쯤에 피난을 간 셈입니다. 스테반 때에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이방족속의 땅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면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까?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을 가야 합니까? 가야죠! 과거에 교회를 지키겠다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가 순교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어느 것이 현명한지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우면 일단 도망을 가야죠. 그렇게 목숨을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더 잘했는지 저로서는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숨어 있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고향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건 박해를 피해 멀리 도망갔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더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포항에서 진짜 포항 사람을 만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다른 곳에서 오셨을 줄로 압니다. 포항에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별교 갔다 왔는데 참 멀더라고요. 난생 처음 갔습니다. “참 머네요.” 했더니 별교는 먼 축에 들지도 않는답니다. 강원도 화천, 제주도... 그렇게 멀리서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왔다면 후대에 교회의 역사를 쓰는 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기록하실까마는 섭섭하게도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시집을 왔다든지, 직장을 따라 오게 되었죠.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왔던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왔건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

면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성장의 주역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효자 제일교회에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찾아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서 이 교회에 왔건, 아니면 아무 것도 모르고 왔건 그건 아무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중에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라고 합니다. 구브로는 섬이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는 섬 사람이고 또 하나는 저쪽 아프리카 지역 사람이니까 촌놈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도 따라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지난 번 앞부분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해도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환상을 세 번이나 보고도 이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지 몰랐겠습니까? 심지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도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기에 "아, 이 환상과 이런 현상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베드로가 그제야 간신히 깨달았던 그 시절에 촌놈들이 말도 안되는 짓을 한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의 실수가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까?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수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에서 나온 실수입니다. 가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으면 크게 되긴 어려워요. 부모 말씀을 잘 안 들으면 크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방에 들어가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부모 말씀 잘 듣는 착한 아이는 그렇게 큰일은 저지르지 않지만 오손도손 가족과 잘 어울려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주관도 없이 무턱대고 부모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감방가기 딱 알맞지만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소신이 뚜렷해서 말 안 듣는 아이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말도 안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것이 결국은 교회가 자라나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불러일으킨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분들이 너무 중구난방이다, 조직적이지도 못하고 체계적이지도 못하다는 말들을 가끔 합니다.

분명히 당회를 거쳐서 의논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어떤 분이 단독으로 혼자서 홈페이지에 올려 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어떻게 가야 될텐데 의논도 부족한 상태에서 발표가 되고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냐는 이야기도 합니다. 가끔 그렇게 조직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더러더러 보이기도 합니다. 각자가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뜨거움이 있다면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뛰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유익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해 나가느냐는 것보다 정말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함부로 나가서 복음을 엉뚱한 데 전한 그 실수가 오히려 안디옥 교회를 형성시킨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느 분이 실수로, 그걸 실수라고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꺾렁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청소년감호소에 갈 아이의 보호자가 되는 바람에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전도를 참 잘 했습니다. 문제는 꼭 자기 같은 놈들만 전도해 온다는 사실이죠. 교회 오기 전에 담벼락에 붙어 서서 담배 한대씩 피우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다른 아이들이 가끔 그래요, “선생님, 재네들 담배 냄새가 나요.” 나중에 심지어 어떤 집사님들한테서도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고등부 아이들이 담배 피우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교실에 성냥개비가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내색을 안 하려고 애쓰지만 선생님들은 그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은단을 사서 나눠주기도 하고 “조금 힘들지?” 하고 은단을 사서 나눠준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꺾렁꺾렁한 아이들이 열심을 내면 전도를 참 잘 합니다. 그래서 수복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 다 버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애 데리고 온 게 실수입니까?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라면 그런 아이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선한 아이로 만들어 가야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저 모양이냐?” 하기 전에 “아! 저런 아이들을 우리가 품어서 제대로 키워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아마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 불러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비난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디옥 교회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실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실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실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실수를 하게 했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열심과 복음에 대한 열심만 있다면 어떤 사람 어느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이것이 교회 성장의 밑바탕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헬라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많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봅시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때 쯤에 아마 베드로의 환상과 그 대답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어야 된다는 걸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다말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자라고 있더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루살렘 교회 교인인데 저쪽에서 말도 안되는 녀석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면 정말 기뻐하며 그 교회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가 개척교회를 세우면서도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 개척교회를 돕겠다고 하면 기꺼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막말로 막아버립니다. 개척교회를 세운다고 해 놓고 성도가 간다고 할 때 기꺼이 보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정말 크게 성장하고 잘 자라가면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교회가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먹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크게 자라나면 대부분 눈을 이상하게 뜨고 봅니다. 저거 또 무슨 이단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기뻐하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지 고민을 하다가 바나바가 가장 적합하고 생각하고 보냅니다. 좋은 인물이 있어도 다른 교회에 잘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는데, 바나바가 없어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던 그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꼭 필요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하고 교회만 출석 하면 됐다 하고 안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 하고 교회에 받을 들인 것은 이제 출발입니다. 출발했다면 성장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 일은 세월만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신실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성숙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바나바는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24절에 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 다음에 보면 ‘이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열두 사도는 아닙니다마는 칭찬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권위자였죠? 권하고 위로하는 일을 참 잘 했던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가서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에 파송을 받은 사도의 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품 잡지 않고 교회를 잘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온화한 사람은 꼭 필수적인 사람입니다. 거기서 전도 받아 나온 이방인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중요합니까, 좋은 교인이 중요합니까?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가 성장합니까, 좋은 교인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합니까? 둘 다 필요하지요. 교회 성장에 있어서 지도자가 중요합니까, 교인이 중요합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요? 이걸 굉장히 좋은 말이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나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할 때에 목사님을 향해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하지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때문에 교회 이 모양입니다 이런 뜻이 되어 버립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좋은 교인이 있어야 성장하지요!” 이 말은 “여러분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이 되거든요. 어떤 말이라도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장로님은 자신들을 향해서 “지도자가 중요하지.” 하면 좋은 것이고, 반면에 교인들은 “우리아 어떻게 하든 목사님과 장로님만 잘 하면 교회는 성장한다.” 그건 아닙니다. 훌륭한 교인들이 있어야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고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좋은 학생이 나온다 이것도 맞지만 좋은 학생이 있어야 좋은 선생님이 나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잘 만나야 합니다. 선생님은 좋은 학생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학생을 잘 만나서 선생님이 유명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좋은 지도자 좋은 교인이 되어서 교회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열심 있고 뜨거운 성도들이 있었고 또 바나바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파송되어서 성도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 다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왜 사울을 찾으러 갔을까요? 아마 사역을 하다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필요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전에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문제가 너무 커져서 제자들이 사울을 고향에 돌려보냈습니다. 고향에 돌아간 지 추측컨대 10년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서 바로 전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고향에 가서 근 10년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때 무슨 일을 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향 가서 암전하게 있을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추측컨대 그 지방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시다. 그 소문을 바나바가 들었겠죠.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헬라 문화도 잘 이해하고 유대 문화도 잘 이해하는 양쪽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사울이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둘이서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는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회심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소개시켜 준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고향에 근 10여년 묻혀 있을 때 그를 불러서 다시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준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성격이 좀 과격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갈라서게 되죠. 바울이 좀 양보하면 좋겠다 싶은데도 바울이 양보하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고 말았습시다.

이때까지 이름이 사울이라는 사실은 기억해 두십시오.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뒤에 바울이 되었다고 쉽게 말합니다마는 적어도 이 긴 세월이 지나고도 여전히 사울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울을 불려서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어 낸 사람이 바나바고 그를 그렇게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울은 위대한 사역자가 될 만한 능력과 소질이 다분히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를 불려서 복음의 전선에 세워서 위대한 사역자로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더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 어쩌면 사울이 등장할 기회가 없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키운 인물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혼자서 많이 웃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 압니까?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하다못해 전기를 쓴다면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목사가 되게 한 교회는 효자제일교회다.” 맞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바울을 불려서 바울이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배웠을 뿐입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바울이 탄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 하나 불려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부지런히 공부하게 하고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공부하십시오 하고 붙들어 대면 전도사가 공부 안 하고 배깁니까?

제가 어느 해 OO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 이 학교는 이 근처에서 제일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입니다. 교실에 가니까 자꾸 잠이 와요. 무슨 탈이 났나 싶어 병원에 갔더니 이상 없대요. 그런데 교실에만 가면 잠이 와요. 고등학교 교실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중학교 2학년 수준 이상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재연구나 가르칠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가서 50분을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한 20분 지나면 잠이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이 학교 오래 있다가 사람 버리겠다 싶어서 1년 만에 간신히 도망을 쳤지요.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한 학생들이 모인 곳에는 선생님도 눈이 반들반들해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같은 이칩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키워놓았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 성장에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26절 끝부분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칭송하는 말이었는지 조롱하는 말이었는지 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믿는 성도들은 초창기부터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칭송받는 사람들이었음을 꼭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다른 사건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칭송을 받았습시다. 안디옥 교회도 물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참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며 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부끄러운 이름일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어디 나가도, 어느 누가 봐도 칭찬 받을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 버릇은 성령도 못 고친다는데 믿는다고 해서 나쁜 버릇이 저절로 고쳐지거나 습관이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영영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 버릇이 성령보다 더 셉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고쳐야 하는 버릇이나 고쳐야 하는 성격은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격이나 특정한 버릇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외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혹시 함께 생활하는 부인이나 남편의 버릇을 고쳐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고치려고 마음먹지 마십시오. 안 고쳐집니다. 우리 신랑 저 버릇만은 어떻게든 고쳐야 되겠다? 아무리 해 보십시오. 안 고쳐집니다. 상대방 버릇은 못 고친다고 해도 자기 버릇은 고쳐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

로는 잘 안됩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바뀌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전에 가족에게 칭찬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다 뭐라 그래도 내 남편은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 부인한테서 나와야 하고 자식들에게서 그런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칭찬을 들은 것 역시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만한데 기여했던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27절을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말합니다. 몇몇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더라는 얘깁니다. 거기에 '주의 손'이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주인공이 된 책입니다. 성령이 앞장서서 이 모든 일을 행하여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몇몇 사람이 복음의 열정에 불타서 실수하듯이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그런 결과가 나타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이 가능해졌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을 꺼낸 것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한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실수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가능해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진정한 교회 성장의 주역이 누구냐는 이야기입니다.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되어 갔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절대로 어느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계획하셨던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셨고 다윗까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일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진두지휘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을 배제한 채 하나님 단독으로 일을 이루어 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일을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여러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에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고 걱정하셨을 그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때 눈에 뜨였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있을 그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때 하나님의 눈에 뜨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추진하려고 하실 때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단독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 교회를 위해 헌신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게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흔히 바나바나 사울을 예로 들기가 쉽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바나바나 바울이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큼니다. 그러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교회 일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채 복음을 전하려 다녔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다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배워야 전도한다?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오히려 잘 못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곱씹은 아이가 하나 교회에 들어오더니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데려오는지 모릅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이러다가 교회 어떻게 됩니까? 걱정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뭘 가르쳐야 하는지 이런 것 알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을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효자제일 교회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되건 간에 그건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 효자제일교회가 성장하는데 주역이 될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데 밀바탕이 되었던 사람들은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세워진 교회에 들어와서 잘 이끌어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내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이 도착하기 이전에 교회가 이미 형성되어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었고 뾰족도 모르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후대에 이름이 남긴 안 남긴, 내 이름이 드러나든 안나든 관계없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은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